



이번 연차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, 일본, 러시아 등 인접 주요국 RI관련 단체에서도 참석하여 동북아시아 각국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현황과 전망이 소개되었으며, 발표된 주요과제 및 패널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- 아시아 지역에서 RI생산 중심 전략 (박경배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이용연구단장)

- 동위원소의 생산과 이용의 이로움
- 미국의 시장 전망
- 아시아 지역에서 RI생산 중심 전략 추천

● 방사선 기기 기술개발 국가간 협력방안(채중서 원자력의학원 싸이크로트론응용연구실 책임연구원)

- 방사선 기기 기술개발 관련 공동 연구기관을 지역 국가 4~5개국 정도로 공동 설립 및 관리
- 고가의 방사선 기기 풀을 만들어 관련 국가에서 공유하고 공동 사용하여 기기 활용도를 높임
- 방사선 기기의 활용과 기술 개발에서 파생된 관련 기반기술 보유는 매우 큰 의미

● 진단용 RI 이용현황과 발전방안(김병태 삼성서울병원 대한핵의학회 이사장)

- 핵의학 체내영상검사가 더욱 발전하고, RI 이용 증대를 위해서는 방사성의약품 개발이 급선무
- 핵의학영상기기 개발은 진단목적에 맞는 기기를 특성화할 수 있어 좀더 예민하고 해상도가 좋은 기기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어 임상 진단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RI 이용 증대에 기여

● 비파괴검사 분야의 RT현황과 발전방안(주광태 한국비파괴검사진흥협회 기획분과위원장)

- 방사선이용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과 활용화 촉진
- 초일류 NDT기술을 위한 경영 혁신
- 이용자 중심 단체의 활성화
- NDT제도의 확립

협회는 본 연차대회 개최를 통해 국가간 현안사안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,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현황을 재조명하는 등 21세기 우리나라가 국제적 RI이용 증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한국 · 중국 · 일본 3국간 협력회의



협회는 11월 28일(목) 삼성호텔 2층 사파이어홀에서 한·중·일 3국간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회의를 개최하였다. 이날 회의에는 한영성 협회 회장을 비롯한 정종혁 상근부회장, 채화목 부회장, 이명철 부회장 및 허남 국제협력 위원장과 각 국 대표단(중국4인, 일본국2인) 이 참석하였다.

금번 회의에서 협회는 3국간의 보다 발전적이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사

항을 제안하였다.

- 3국의 협력유지를 위한 교류 정례화
- 전문가 및 정보자료의 공유
- RI생산 및 수요공급의 창구
- 아시아 지역 학술대회 개최
- 민간 및 전문가 교류의 창구
- 국제동위원소회의의 한국유치 지원

한국 · 중국 및 일본은 우선 2003년도에 일본에서 3국간 정례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향후 이날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'3국간 RI이용증진 협력을 위한 약정서' 를 체결키로 하였다.

2002년도 RI 등 이용분야 유공자 포상

우리협회에서는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용조성, 안전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한다.

포상은 산업, 교육, 연구, 비파괴, 의료, 공공분야별로 구분하여 방사선의 안전증진 및 이용진흥 등에 공헌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와 단체에게 각각 과학기술부장관 표창과 협회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.

포상후보자는 12월 7일(토)까지 접수받아 당 협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 후보자를 선정하며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는 이를 과학기술부에 추천할 계획이다. 수상자 확정 및 발표는 개별 통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, 시상식은 12월 말경 과학기술부 및 당 협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.